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홈페이지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3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골별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미사 안 내	주 일	토요일 주일 19:00 06:30 (새 벽)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0:30 (교 중)	
		12:00 (낮) 12:00 (초등부 소성전)	
		16:00(국제미사) 19:00 (청 년) 21:00 (밤)	
	평일	새벽 6:30 / 저녁 7시	(목)오전 10시
예비자교리	일요일 낮 12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 세례	3월 6월 9월 12월 두 번째 일요일 (초등부 미사)		

♣ 5월은 “성모 성월” 입니다. ♣

◎ 알 림

- 오늘(5/20) 청소년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 다음주(5/27) 돈보스코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헌금 있습니다.
- 성경공부 동영상 시청 안내
(홈페이지 주소 : <http://guro3cc.com> → 성당소식 → 동영상자료)
- 5/22(석가탄신일) 사무실 쉽니다.

◎ 5월 성모성월 묵주기도 안내

- 묵주기도 : 매일미사 30분전 시작
- 9월 기도 : 5/17(목)~5/25(금)
- 성모의 밤 행사 : 5/26(토) 저녁 7시
- * 성모님께 봉헌하실 분은 사무실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모 임

모 임	일 시	장 소
· 만나회 월례회의	5/21(월) 오전10시	6교실
· 성체분배자 성시간	5/28(월) 19시 45분	성체조배실

◎ 예비신자 교리반 첫모임

- 일 시 : 6/10(일) 12시 / 6교리실
- 기 간 : 8개월 / 교재 : 함께 하는 여정

(일) 낮 12시	최상남 요왕
(화) 저녁 8시	박경석 보수코 수사님
세 례 예 정	2018년 11월

* 전입교우 만남의 시간 *

- 일 시 : 5/27(일) 교중미사 후
- 장 소 : 주임신부님 사무실
- * 구역장·반장님은 전입교우에게 연락하여 주시고 함께 참석바랍니다.

* 전신자 성경쓰기 / 성경 공부 *

- * 전신자 성경쓰기
- 기 간 : 그리스도 왕 대축일(11/25)까지
- * 성경공부 (성경, 하느님과 인간 이야기)
- 시간 / 장소 : 매주 금요일 19:50 / 대성전
- ▶ 신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이주민 일자리 찾아주기 ! (구인 신청 안내)

- 본당 내 이주민 고용을 원하시는 사업주께서는 신청바랍니다.
- 구인 및 구직 접수처 : 사회사목 담당 010-6263-0131 또는 본당사무실

◎ 본당 가정간호사업 안내

대 상	* 신자, 비신자 누구나 이용 가능
	* 만성질환자 중 거동이 불편하신 분
	* 암환자 및 특수 간호가 필요한 분
	* 장기요양등급 받으신 분
문 의	가정간호사 (010-8229-5785)

◎ 청소년 분과

- 16구로지구 청년 오솔길 나들이
- 일 시 : 5/26(토) 오전10시
- 장 소 : 삼성산 성지 (관악산자연공원 입구 출발)
- 대상 / 회비 : 16구로지구 모든 청년 / 회비 없음
- 문의 : 허기영가브리엘 010-7382-8108

◎ 제 4 회 한국 청년 대회

- * 청년대회에 함께 참여할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 주 제 :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요한 6,20)
- 일 시 : 8/11(토)~15일(수)
- 모집기간 : 5/31까지 사무실 접수
- 대상 / 참가비 : 17세~39세 / 15만원 예상

* 홈스테이 가정을 모집합니다.

한국청년대회에 타고구에서 참석하는 청년들과 함께 할 홈스테이 가정을 모집합니다. (본당마다 20여 가정)

◎ 군 복무중인 청년을 찾습니다.

- 각 가정에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청년의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청년 연합회에서 분기별로 간식과 본당 주보를 보낼 예정입니다. 사무실로 5월 말까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청년의 날 행사 안내 *

- * 신앙 안에서 청년활동을 통한 이웃돕기 행사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 시 : 6/30(토) 18시~21시
- 장 소 : 구로3동성당 식당
- 주 체 : 구로3동 성당 청년연합회
- 문의 : 곽정희 마리스텔라 010-3785-8617
- * 본당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함께해주세요!

◎ 다음 주일(5/27) 국수잔치 / 청소

국수잔치	24구역	청 소	23구역
------	------	-----	------

* 청소 담당 구역에서는 빠짐없이 적극 참여하여 주십시오.

◎ 구역미사 및 형제회 모임

일 정	구 역	성당(강당)	형제회
5/23	4구역	11구역	23구역
5/30	14구역	22구역	8구역
6/7	임원모임(반,구 구역장, 형제회장, 사목위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날짜	해 설	복 사	독 서
5/20	정은주	오성한 조흥환 신종구 김현철	최웅조 정연희
5/27	이은희	최상림 임공섭 하재민 도현문	최상남 이영민

◎ 우리들의 정성

- 교 무 금 7,491,000원
- 주일헌금 7,509,700원
- 홍보주일 2차헌금 1,023,000원
- 감사헌금 남서울떡집5만원 강인석5만원 이주화20만원 권오희10만원 조임분10만원 이수무 5만원

회답송



주-님 당신숨을 보내시 어 온누리의 얼굴을 새 롭게 하 소 서

교무금 통장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써 주세요.)

◎ 성체 분배자 명단

날짜	토요주일	06:30	10시 30분	12시	저녁7시	밤9시
5/20	장인홍	박승환	박형순 김광수 최석준	최창열	최승일	박승환
5/27	장인홍	최승일	손상민 김인기 박용환	최석준	오광운	최창열

◎ With- Bosco 회원 모집

- 주님의 은총 안에서 돈보스코의 정신을 기억하고자 모인 축구동호회 입니다.
- 시간 / 장소 : 일요일 / 영서중학교
- 문의 : 신종식 요셉 (010-2721-7527)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행동하는 교리

111. 왜 정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나요?(계속)

생명의 복음 반反 연대 문화

실제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도덕적 불확실성이라는 풍조를, 어느 면에서는 오늘날 사회 문제들의 다양성과 중대성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개인들의 상대적인 책임이 경감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보다 훨씬 큰 실재, 곧 진정한 죄의 구조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실재에 직면해 있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실재는, 연대성을 거부하고, 많은 경우 참으로 ‘죽음의 문화’라는 형태를 취하는 그러한 문화의 출현을 특징으로 합니다. 강력한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경향들이 이러한 죽음의 문화를 활발하게 조장합니다. 이 경향들은 효율성에만 관심을 가진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라고 지나치게 부추깁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회칙<생명의 복음>(1995년)12항

진리 안의 사랑 사랑은 정의를 넘어서다

무엇보다도 먼저, 정의입니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습니다. 모든 사회는 고유한 정의의 제도를 세웁니다. 사랑은 정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 곧 ‘나의 것’을 남에게 내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랑에는 결코 정의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정의는 남에게 ‘그의 것’, 곧 그의 존재와 행위를 근거로 그가 받아 마땅한 것을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정의에 따라, 남에게 속한 것을 먼저 그에게 주지 않는다면 ‘나의 것’을 남에게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선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에게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사랑은 정의를 요구합니다. 곧 개인과 민족의 합법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랑은 법과 정의에 따라 지상의 도시를 건설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사랑은 정의를 초월하여 베품과 용서의 논리로 정의를 완성합니다. 지상의 도시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감사와 자비와 친교의 관계를 통해서 더 커지고 더 튼튼해집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 회칙<진리 안의 사랑>(2009년)6항

진리안의 사랑 사랑과 정의의 공동선

공동선을 바라고 추구하는 것은 정의와 사랑의 요구입니다. 공동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사회생활에 법률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틀을 마련하여 도시 또는 ‘국가’를 형성하는 총체적 제도에 한편으로는 정성을 기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의 실질적 요구에 부응하는 공동선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웃을 더 효과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직업과 사회적 역량에 따라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도록 부름 받았습니 다. 이는 사랑을 실천하는 제도적인 방법으로서 -정치적인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의 제도적인 중개 없이 이웃에게 직접 실천하는 사랑에 못지않게 탁월하고 효과적인 것입니다. 공동선을 위한 노력이 사랑으로 활성화되면 단순한 세속적 정치적 활동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이 됩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 회칙<진리 안의 사랑>(2009년)7항